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스팟 리포타주 : 뽀띠 프랑스

글,사진 : 이성재

자료: 뽀띠 프랑스

뽀띠 프랑스 Petit France



강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뽀띠 프랑스>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려 작년에 개관하였다. 프랑스의 150년 된 저택을 해체하여 들여와서 그대로 재현해놓은 고택, 어린왕자의 저자인 생텍쥐 베리가 직접 그린 그림, 오르골, 인형 등 많은 볼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화속 나라에 있는 듯한 미니어처 무드를 재현한다.

Petite France

쁘띠 프랑스는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국제 문화 체험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체험과 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지어졌다.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프랑스의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굳이 해외에 가지 않아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 7월에 설립되었다.



Little garden 작은 정원

작은 프랑스를 연상시킨다. 조금은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는 하얀 집과 아기자기한 소품, 맑은 하늘,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청평호수의 조화가 아름답다. 또한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익살스러운 배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함을 불러일으킨다. 전자제품, LED, 네온사인 등과 같은 현란한 장식오브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외부 자연환경과의 최대한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평일 오후지만, 관람객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용한 프랑스의 한 시골마을을 보는 듯하였고, 매우 편안함을 주는 장소이다.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어드벤처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프랑스의 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조화를 갖추고 있다. 아기자기하게 모아놓은 작은 정원과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오르골 하우스

1770년경,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되어, 소품들에 적용이 되었던 오르골은 태식으로 작동하는 음악재생 기구이다. 오르골 하우스에서는 몇 백년 된 대형 오르골을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들여와 전시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음색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오르골 뿐만이 아닌 고전악기, 초창기 라디오와 같은 고유엽품의 느낌을 오르골 전시관 자체에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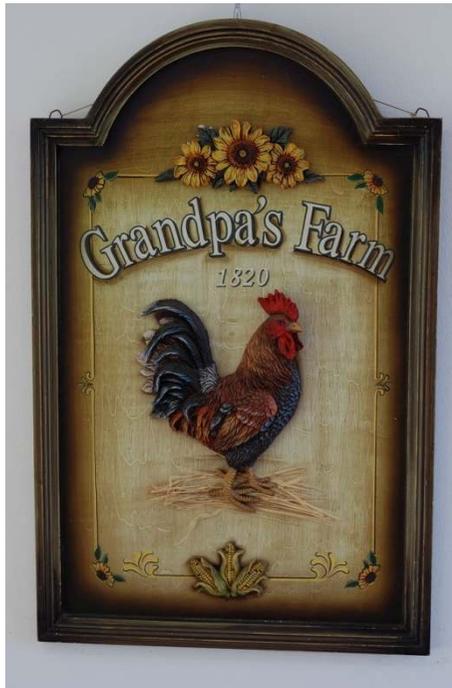




생텍쥐페리와 어린왕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명인 생텍쥐페리와 어린왕자를 엿볼 수 있는 생텍쥐페리 기념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텍쥐페리의 삶에 대한 기록, 탄생, 죽음 등에 관련된 기록들이 전시 되어 있다. 또한 뷔띠 프랑스 곳곳에 어린왕자와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 되어있다. 외부 조형물은 어느 공간에서도 잘 보이게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생텍쥐페리 전시관 내에는 지금까지 출판된 어린왕자의 책 종류를 모두 모아 전시해 놓았다.





프랑스의 상징 수탉

고대 갈리아족의 화폐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수탉은 처음엔 왕을 조롱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발전하여 중세에 와서는 승리와 용기를 뜻하게 되는 상징이 되었다. 뷔띠 프랑스에는 이러한 수탉을 소재로한 각종 오브제를 전시함으로써 프랑스를 홍보한다.



수탉을 들어가 있는 판화, 종이 작품, 풍향계, 액자와 같은 많은 종류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현대 작품에서부터 중세시대의 무드를 가지고 있는 작품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어떻게 그 표현이 변화해 왔는지 까지 한번에 볼 수 있다.



기념품관

기념품관이라고 하여 상업적인 면에만 치중하지는 않은 제품의 선택이 눈에 띈다. 오르골 공연과 전시 뿐만 아니라 작은 오르골 미니어처를 감상하고 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판매까지 하는 작은 샵이 위치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수입한 향과 관련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오일 테라피 제품부터, 방향제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인공향료가 아닌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져 이곳을 방문한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